

“과정은 어려웠지만 난 행운아”



양상불 디토 11년간 이끈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조합·배열이 ‘디토’의 의무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40·사진)은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서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몇 안 되는 연주자 중 하나다.

‘원조 클래식 아이돌’로 불리는 양상불 ‘디토’를 11년간 이끌었고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에네스 콰르텟’ 비올라 주자로도 활약 중이다. 비올리스트로서는 드물게 9장 앨범을 냈으며 두 차례 그래미상 후보로 지명됐다. 미국 출신 클래식 음악가에게 최고 영예인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도 받았다.

그는 “난 행운아”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익히 알려졌다시피 6·25전쟁 때 고아가 돼 미국으로 입양된 장애인 어머니와 아일랜드계 미국인 조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배경을 상처나 어두운 성격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는 “물론 내가 시작한 지점에서 원하는 곳까지 가는 과정이 쉽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게 중요한 것은 특정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같이 즐기면서 가는 그 여정 자체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비올라를 연주하는 것, 그것이 제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행운아였어요. 누구나 각자의 여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매일 ‘한 걸음 더’ 걸어나가는 모두가 기적이고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42.195km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사랑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결승점에 도달하는 순간보다 뛰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풍경이 절 행복하게 해요. 가족이 선수를 기다리다가 꼭 안아주는 모습 등을 지켜보는 게 즐거워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모두에게 저마다 이야기가 있고, 이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게 마라톤의 매력이지요.”

그는 음악 여정에서도 함께 즐기고 서로 도울 연주자들을 모았다. 그 팀이 바로 양상불 디토.

2007년 결성한 디토는 탄탄한 연주력과 깔끔한 외모, 세련된 패션 감각을 두루 갖춘 젊은 연주자들과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앞세워 ‘클래식계 아이돌’로 불렸다.

“디토와 함께한 10여 년 동안 실내악 장르가 대중에게 더 친숙해진 점, 베토벤·차이콥스키 등 친근한 레퍼토리부터 버르토크·쇼스타코비치 등까지를 다룬 것, 정경화·기돈 크레머 등 대가들과의 합동 무대를 가졌던 점 등이 특히 자랑스럽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흔이 된 용재 오닐은 “저도 더는 젊지 않다”며 웃었다.

그러나 그는 디토의 핵심이 ‘나이’가 아닌 ‘유연함’이라고 강조했다.

“디토의 의무는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조합과 배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은숙, 스티브 라이히 등 살아있는 이 시대 작곡가들의 음악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뛰어들어 그 음악의 본질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양상불로 남고 싶어요.”

/연합뉴스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청년 신인작가전

서완호·장승호 등 5명 선정 ... 첫 작가 장미란 20일까지 ‘올림’ 전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스님) 로터스갤러리는 지역 젊은 작가 지원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올해로 6화째를 맞는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청년 신인작가 공모전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30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작품성, 성장 가능성, 장르 등을 고려해 모두 5명을 선정했다. 대상자는 장미란(수목), 서완호(서양화), 장승호(서양화), 문창환(미디어·설치), 김연호(서양화) 작가다. 무각사는 선정 작가가 개인전(20일)을 개최할 수 있도록 로터스 갤러리 공간과 전시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격려금(100만원)도 지급한다.

올해 청년 신인작가 공모전시의 첫 주자는 한국화가 장미란 작가다. 오는 20일까지 ‘올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정 작가는 조선대 한국학과 출신으로 중국 북경 중앙미술학원 중국화 수목인물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8기 작가로 활동했으며 조선대 미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정 작가는 수목의 번짐과 중첩의 효과를 살려 자연과 불상 작업을 주로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수목채색화 작품들은 한지에 흔들리는 풀과 화사한 꽃들을 간결하고 담백하게 표현해 내 여운을 준다.

정 작가는 중국과 북경에서 4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중국에서 열린 ‘2018 불교주제 초청전 離相전’ 등 50여차례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어지는 전시는 서양화가 서완호 작가의 개인전(6월22일~7월10일)이다.



‘홀날리아’

청학 주지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가의 길에 들어선 신인 작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작가들을 꾸준히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062-383-0070. /김미은 기자 mekim@

유 치엔 첩·다니엘 정 출연 ‘앙상블 디토’ 광주 공연 18일 광주문화회관



다니엘 정



김한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디토펙스티벌이 7일 문을 연다. 2018 페스티벌은 리처드 용재 오닐 & 임동혁 콘서트, 미샤 마이스키 협연 등으로 구성된다.

하이라이트 무대인 ‘앙상블 디토-다이나믹 라운드’의 광주 공연은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앙상블 디토는 매년 멤버를 자유롭게 구성하는 게 특징이다.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 올해도 뛰어난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한다.

지난 2015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한 대만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유 치엔 첩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윤이상국제 음악콩쿠르 우승, 사라사테 국제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젊은 연주자다.

커티스 읍대,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수학한 다니엘 정은 한국계 최초 그래미 수상의 쾌거를 이룬 ‘파커 파르벳’ 리더로 지난 2011

년부터 앙상블 디토에서 활동 중이다.

피아니스트 스티븐 린은 줄리어드 음악원 출신으로 스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3등상을 받았던 2014 루빈스타인 콩쿠르에서 2위 입상했던 연주자다.

그밖에 지난해 금호아트홀 상주아티스트였던 첼리스트 문태국은 아시아인 최초로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에서 우승, 이름을 알렸다. 최근 미국 보스턴에서 워너 인터내셔널과 함께 데뷔 앨범 제작을 마무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클라리넷 연주자 김한은 최근 유럽 명문 오케스트라인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의 클라리넷 부수석으로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연주 레퍼토리는 바르토크의 ‘콘트라스트’,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삼중주’,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등이다.

티켓 가격 8만8000원, 6만6000원, 3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



가공하지 않은 순수미술 소화누리, 틈새미술 수상작 전 1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인 소화누리가 주최하는 틈새미술전이 오는 1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아트라운지에서 열린다.

틈새미술전은 소화누리가 아모레퍼시픽과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 미술적 재능이 풍부한 광주지역 여성정신장애인 작가(아르브뤼 작가)를 발굴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진행한 제 1회 틈새미술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상작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상작인 박희선씨의 ‘꿈꾸는 여인’을 비롯해 입상작 4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입상작들은 전시가 끝난 후 컵, 예코백, 거울, 티셔츠 등 아트상품 디자인으로 사용되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작가에게 지급된다.

‘아르브뤼(Art Brut)’는 ‘원생(原生: raw) 미술’로 번역되며 ‘가공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한 미술’을 지칭한다. 1945년 프랑스 화가 장 뒤뷔페가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하고 창조적 충동에 의해 작업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그림을 예술적 창작물로 인정하는 말로 처음 사용했다.

소화누리는 광주지역 여성 정신장애인의 미술적 재능을 활용한 자립기반형성 사업인 ‘디자인을 Job다’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품과 아트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로 정신장애인 아르브뤼 작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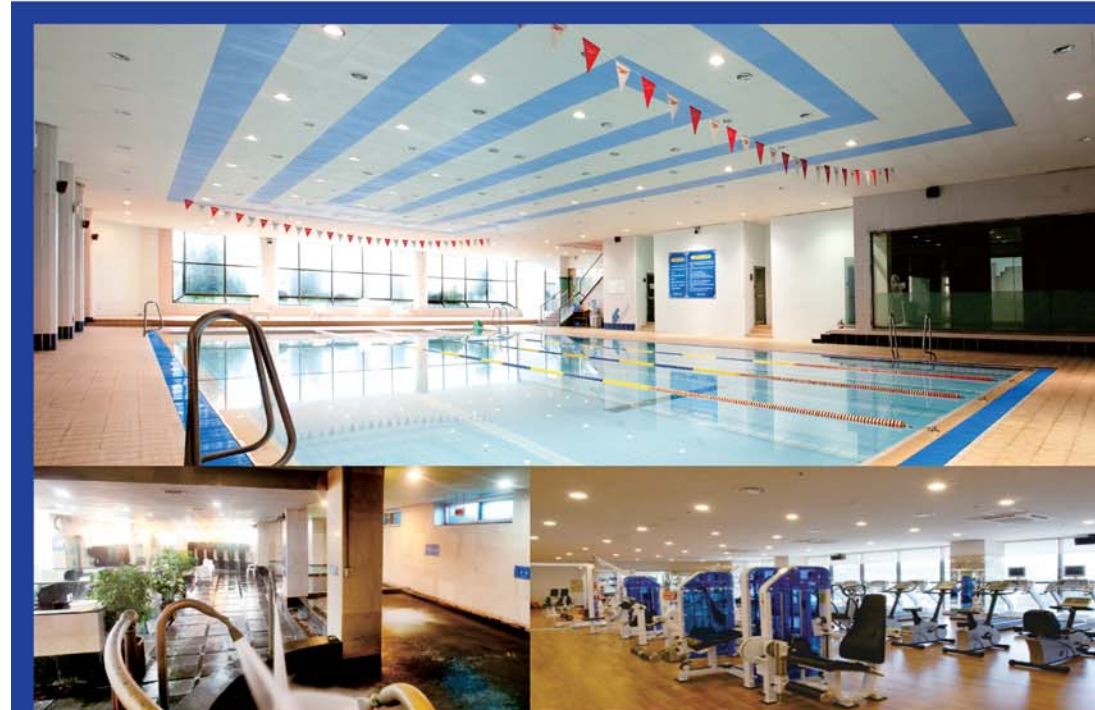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